

# 기분 나쁠 때도 웃어야 불자

라가면서 끝까지, 끝까지 비위만 맞추고 웃만 받들 생각만 가지십시오. 이것이 용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여의지 말고, 보살의 할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공입니다. 우리 모든 스님들은 수행이 없는 불자는 꺾어 놓은 꽃잎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사

많은 때물과 많은 웃과 많은 재산은 티끌만큼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항상 우리는 인간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을 떠줘도 고마움을 알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평생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에 대해 최소한 효도는 못할망정, 불효는 해서

이 미소 짓는 거, 이 입이 백 번 웃어도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상처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하고, 되도록 웃어야 됩니다.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미소 짓는 곳이 이곳 광주여야 합니다. 자 합장하고 따라해



2009 빛고을 아카데미 입재식 모습.

를 하되 수행이 근본이 되어 합니다.

생각 생각이 언제든지 염불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염불 생각이 끊임이 없어야 하고, 화두 하는 사람은 화두가 끊임없어야 되고, 한 생각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에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망상이 쳐들어올 틈 없이 보리심을 항상 발해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떡 올리고, 돈 올리고, 절 짓는 것 보다는 불자로서 수행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포교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심과 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법문도 인연이 두 가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이 세상에 잘 살다가 가는 길은 남보다 비싼 차를 끌리고, 남보다 넓은 평수에 살고, 남보다 훌륭한 벼슬을 따고, 남보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십수신천재보(三十分身千載寶)' 백년탑 물일조진(百年食物一朝廳)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닭은 마음은 이 세상을 뜰 때, 천년만년 세세생생의 보배가 되지만, 많은 돈과

는 아니됩니다.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흥년이 들어 부모님이 굶어서 앓아 계신 것을 보고, 잘 드는 칼로 자기의 살을 한 근 한 근 베어내어 불고기를 만들어 올리고, 피를 뽑아서 국을 만들고, 뼈를 갈아서 죽을 만들어 부모님께 봉양하기를 이십년 삼십년을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평생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뉘어주며, 사랑해 염려해주신 은혜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는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모두에게 공양하고, 모두에게 보시하라는 말입니다. 문수보살 계승 중에 이런 계승이 있습니다.

'面上無嗔供養具(면상무진공양구) 口裡無嗔吐妙香(구리무진묘향) 心裡無嗔是珍寶(심리무진진보) 無垢無染是真常(무구무염시진상)' 이다.

미소 짓는 그 얼굴이 가장 좋은 산물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복이 되고 향이 되네. 자비롭고 고운 마음 으뜸가는 보배이며, 하심하고 공경하면 참 사람의 모습이다.'

보십시오.

오늘부터 저희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웃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금방 웃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일이 없어도 웃고, 일어나면서부터 웃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분이 나빠도 웃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말이 끊이지 아니해도 가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기가 좋는데 기분이 나빠도 웃는거 이것이 어렵습니다. 기분 좋을 때 누가 못 웃습니까. 오늘 법문 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이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할 줄 아는 그 수행을 익히고, 남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살의 가르침이고, 보살의 진리요, 부처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67. 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

보성(寶城, 1906~1998) 스님은 태고종 제12대, 15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그러나 나예겐 동국대학교 총장으로서 졸업증서를 수여해 주셨던 스승님이다. 보성 스님은 1906년 경남에서 태어나 19세에 강원도 건봉사에 출가하였다. 은사인 경담 스님은 모처럼 얻은 귀한 상좌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게 했다. 경담 스님은 보성 스님이 1922년 이력을 마친 뒤, 1932년 동경 유학길에 오를 때까지 바로 선방에 들어가 20만거를 성만케 하고 중앙불전까지 마쳐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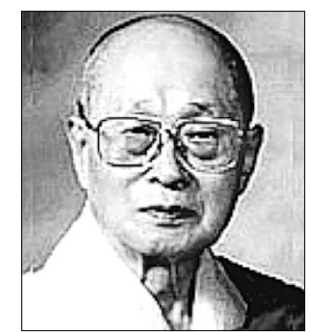
경담 스님은 보성 스님이 1940년 일본대학 종교과 전문부를 졸업하고, 1942년 다시 문학부 사학과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었다.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의장과 종정을 두 번 씩이나 역임했지만 그렇게 하심(下心)할 수가 없었다.

보성 스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해도 그냥 앉아서 받는 법이 없고 꼭 함께 절을 했으며, 설사 사미행자가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도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스님, 말씀 낮추세요. 이제 갖출만한 행자입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속에는 황



월이 지나니 그 허물이 저절로 벗겨져 지금은 대한항공 파리지 부장을 지내고 있다. 근본적인 병은 남북분단이 병이다. 멸정한 유학생들까지 간첩으로 몰아 수십 명이 희생되니 괜히 그 가족들은 돈 버리고 죄인이 된 셈이다. 그 대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조주 옛날은이가 앉아서 천성의 길을 곱듯 보성스님 얼굴에 취모음을 들이 댔으나

은 몸에 구멍 한 점 나지 않았네.

여우와 토끼 밤새도록 날뛰다가

사자후 한 소리에 뇌관이 터지니

태고의 맑은 바람 태고에 휘날리네."

평상시 마명 거사의 역사 설화

### 태고종 12·15대 종정 역임... 스승 말씀 따라 하심하는 삶

국화여자전문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겸 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 숙명여대 교수와 교무처장, 문리과 대학장이 될 때까지 환희 속에서 제자를 뒷바라지 하셨다고 한다.

한말 "중은 무식한 놈. 부모 처자 없이 빌어먹다 종이 되어 윤리 도덕도 모르는 놈들"이라 하여 얼마나 깔보고 없이 여겼던지 "내 배우지 못했어도 상좌라도 잘 가르쳐서 출세시키면 이같은 없인 여김은 될 당할 것이 아닌가"하고, "설사 그가 중노릇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 출신이 출세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하면서 "동량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성 스님은 그 뒤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한국불교교도회 회장이 되었지만, 늘 은사스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뼈저리게 느껴 마침내 출가해 태고종 중앙종회

금부처를 담고 있으면서... 평소 보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 스님은 "좋은 말, 웃는 얼굴, 바른 생각이 성불로 가는 길이 있다"며 후학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다.

"베푸는 마음 속에 부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관세음 보살이고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극락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만나겠습니까. 종생의 마음은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이 극락인데 부처의 마음을 키워 가는 자비회사의 보살행을 게을리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998년 9월 3일 세수 92세, 법랍 79세로 열반에 들어서는 원주 보림사에서 다비하였는데, 사리를 거두지 말라 명령하시고, 탑을 세우지 말라 하셨다.

세속생활에서 한 가지 가슴 아파하신 것은 독일 유학간 아들이 이북간첩으로 몰린 사건인데, 세

를 즐겨 읽으시던 <불교설화대전> 한 권을 내어 포교자료로 만들고, 말없이 필자의 <불교설화대사전>을 많이 응유했다고 미안해 하셨다. 그러나 그 인연으로 스님의 문집은 큰 상좌와 함께 필자가 정리하게 되었으니, 세상 인연은 겹치고 또 겹치는 것 같다.

개은 안경태 넘어로 잔주름 안 겹처럼 피어나며 미소 짓는 보성 스님의 모습. 이것이 말년에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던 모습이다.

중고식멸처(衆苦息滅處)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 차문시하체(且問是何處) 배우공심문(背欲空心門)

종생 고통 영원히 멸한 곳 천지를 떠난 오직 한 근대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가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운 곳이 거기.

#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특별보급 68,000원

## 냄새, 전기로 걱정없는 태성전기난로

2010년형 특별보급가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향방 냄불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 68,000원  
▲TS-7300(적용면적 : 11.5㎡~3.5평형)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kW×8=667원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



특별할인가 : 88,000원  
▲TS-7000(적용면적 : 24㎡~7~10평형)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kW×8=1668원



특별할인가 : 78,000원  
▲TS-7200(적용면적 : 16.5㎡~5평형)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kW×8=1122원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방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점점업소(상당/주점/편식)

구입문의: 080-800-0022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임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